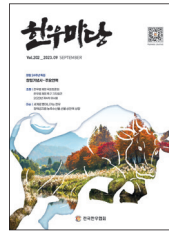


# 한우미당

vol.202

Hanwoo Journal  
2023.09



9월호 표지 이미지

## 44 권두언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상징  
김기현 국회의원

## 창립 24주년 특집

### 46 창립기념사

한우 세계화의 꿈을 펼칩시다

### 48 주요연혁

한우산업과 농가 위해 달려온 24년

## 현장·초점

- 52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 62 한우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64 2023년 제4차 이사회
- 66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 이슈·동향

- 68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우
- 70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 78 8월 한우동향분석

## 기고·정보

- 86 전국한우협회 창립 24주년에 부쳐  
장기선 한우신문 편집인
- 88 한우산업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  
최성호 충북대 축산학과 교수

## 사양·컨설팅

- 90 가을철 효율적인 송아지 사양관리 포인트  
BA플러스
- 94 내 농장 한우개량, 암소에서부터  
황보용 농협한우개량사업소 검정부 박사
- 98 집중호우에 따른 한우 주요질병과 관리요령 ②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 문화마당

- 102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 추석
- 106 휴가 후유증 이렇게 극복하세요
- 110 협회사료 안내
-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초유분말과 Ig를  
하나로!!

비타민A, D3,  
E와 셀레늄을  
동시에 급여!!

면역물질 전달  
태분배설촉진  
영양공급

황금초유  
Gold Colostrum



초유한번  
Colostrum One-Time



A

비타민

D3

「1회분당 미지근한 물 200mL(종이컵 한컵)에 타서 먹이세요!」

면역력 증강 \_ 질병저항성 향상  
셀레늄 첨가 \_ 송아지의 백근증(근무력증) 예방  
비타민 함유 \_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 조절과 면역기능 개선 → 질병 및 폐사율 감소  
편리한 사용 \_ 젖병 입구에 끼워 넣기 좋은 사이즈의 용기  
투여량 감소 \_ “1일 3~5회, 10L 투여” 아닌 “1일 1회, 200mL 투여”

E

셀레늄

송아지 전용



황금똥 Gold Dung

- 송아지 설사 개선 보조제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  
- 약한 송아지의 장을 튼튼하게!



##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상징

### “이땅위에 자존심’ 한우산업 지키기,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행할것”

전국한우협회 창립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토종자원인 한우 산업을 지켜오며 국민의 건강과 식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국의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10만 8천여 축산농가 중 80%가 한우농가일 정도로 한우 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며, 그만큼 우리 농축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를 비롯한 각종 시장 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축산업과 농촌 현장의 자부심을 지켜온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후 한우 사육 마릿수가 350만 마리를 넘기는 공급확대 및 경기 불황 등으로 한우의 도

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풍전등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마리당 발생하는 25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우농가들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우 산업을 둘러싼 축산환경과 규제 등 복합적인 변화로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을 줄 압니다.

최근 시대의 흐름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한우 등 각 축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고,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농촌과 축산업을 굳건히 지켜온 저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한우 산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 위의 자존심인 우리 한우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여정에 국민의힘이 늘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먹거리를 안보하시는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께 다시금 경의를 표하며, 월간 한우마당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국회의원 김기현(국민의힘 당대표)







## 한우법 제정! 철저한 차단방역! 한우 세계화의 꿈을 펼칩시다

한우산업 발전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우농가 권익보호와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협회 소명을 실천하며 어느덧 출범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선대 회장님들과 한우인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한우산업을 만드는 불씨가 되었고, 농업농촌의 대표 품목으로 농축산업 발전에 큰 밑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쳐왔던 숏한 위기마다 우리는 거리로 모여 강한 결집력으로 정면돌파해 왔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는 나보다 한우산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뭉쳐 일궈낸 굵직한 역사라는 점에  
서 우리 스스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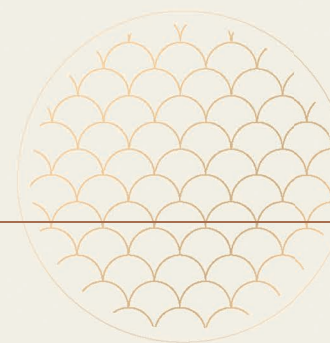
역사는 반복되지만 위기의 역사만큼은 되풀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 후계 한우인까지 농  
사일 놓고 거리로 나서게 할 순 없습니다.

한우법 제정 필요성, 협회가 한우법 제정을 위해 필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한우산업, 안정된 한우산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에서 각각 한우법이 모두 발의 됐지만 마지막 통과 문턱까지 한우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우농가 여러분,  
국민 누구나 기쁘고 특별한 날 한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국민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선물로 한우세트를 곱습니다.



해외에선 한우를 지구상 최고의 고기라 부르며  
한우 맛을 보러 한국에 찾아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우는 일본 화우 수출 뒤를 맹렬히 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한우의 맛과 품질 외에도 세계 눈높이에 부응하는 방역 수준과 책임의식  
이 필요합니다.

한분 한분이 한우 세계화의 주인공이 되어 내 농장부터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시오.

세계 속 명실상부 최고의 보물 한우가 철저한 방역의식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더 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  
십시오.

존경하는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투쟁에 나섰던 청탁금지법은 협회 노력으  
로 선물가액이 지난 '21년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올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개정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풍요  
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우협회장 김 삼 주







## 한우산업과 농가 위해 달려온 24년

### 위기 속에 출범한 전국한우협회

한우 사육두수 증가, 쇠고기 수입확대, 외환위기에 따른 사료가격 폭등,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시장 전면 개방 등 한우농가의 위기감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한우농민을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 1999년 비로소 전국의 전업 한우농가가 규합하여한우농민을 대표하는 '전국한우협회'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 한우자조금 도입

생우 수입 반대 투쟁은 전국의 전업 한우농가를 하나로 결집시켰다. 이 힘을 바탕으로 협회는 자조금법 제정과 한우의무자조금 도입에 성공하며, 한우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쇠고기 이력제

한미FTA 체결후 광우병 이슈가 발생해 한우소비까지 침체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협회는 국민 먹거리 안전 투쟁전면에 나섰다.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의 시행, 쇠고기 이력추적제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고, 소비촉진을 위한 11월 1일 제 1회 한우의 날 기념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이 시작됐다.

### 한우 부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농축협 사료를 쓰지 않아도 음성공판장으로 소를 출하할 수 있도록 협회 직거래유통망 사업이 확장됐다. 부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계약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한우부산물 가격 정상화에 기여했다.



>> 1999

>> 2005

>> 2008

>> 2016

>> 2001

>> 2010-2011

### 쇠고기 및 생우시장 개방

호주산 생우 도입에 반대하는 한우농가 집회를 열었다.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입소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 최악의 구제역 소값 파동

구제역의 전국 확산으로 이동금지, 우시장 폐쇄 속에 한우 공급 증가가 중첩되면서 한우가격 폭락사태가 발생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17만명이던 한우농가의 절반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을 남게 된다.







## 한우법 통과에 모든 역량 집중



### 한우산업 고도화

한우정책연구소를 설립해 현안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협회 전용사료를 출시했다. 또한, 협회는 가정간편식(HMR)을 개발하여 한우 간편식 시장을 확대했다.



### 한우법 제정 추진 및 한우 수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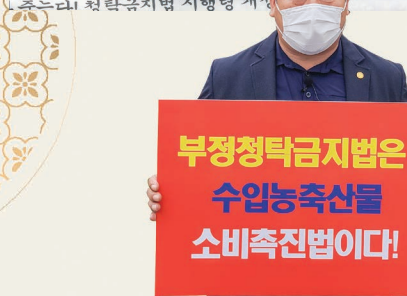
반복되는 소값 파동 고리를 끊기 위해 협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한우산업과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법 필요성에 공감해 여야가 모두 '한우법'을 입법발의했다.

2023년 한우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에 한우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 수출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 >> 2019-2020

## >> 2021-2022



### 사회공헌 사업 고도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보다 우리나라 재난재해 현장에 신속하고 밀도있는 지원을 가능토록 사회공헌 지원체계를 갖췄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으로 한우 이유식 사업을 시작해 영유아 가정 99%의 만족도를 달성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및 자연재해 대응에 한우농가의 따뜻한 마음이 보다 넓게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협회는 2015년부터 청탁금지법 뇌물사치품 대상에 국내산농축산물을 넣어서 안된다고 강한 반대를 해왔다. 결국 법은 제정되었지만 협회 노력으로 '21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3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 >> 2023

## >> 2021-2022

### CPTPP가입 저지

예외없는 무역장벽 철폐, 시장 개방율 96%인 CPTPP 정부의 CPTPP가입 추진에 강력 반대하기 위해 농수산업계가 연대하여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격렬한 제동 끝에 결국 가입저지를 해냈다. 만약 CPTPP에 가입한다면 수입 쇠고기가 국내에서 가공단계를 거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 수입축산물 무관세 규탄 운동

국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주저 없이 수입을 감행하는 정부 기조에 더해 무관세 수입을 추진 정책을 강력 비판하며 폭우속 축단단체 합동 집회를 개최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는 축산농가 1만여명이 집결했으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폐 ▲사료값 안정 위한 특별 대책 수립 ▲수입 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공개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폐 등이 담긴 결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700여 한우농가 ‘한목소리’  
개별법 필요 공감대 형성  
‘한우법 연내 제정’ 촉구

- 일시** 2023년 8월 24일 13: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 주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후원**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농가들이 한 목소리로 한우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여야가 한우 산업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개별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우 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 주최, 본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운집한 700여 한우 농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700여 한우농가들은 소를 출하할 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 현장의 절박함을 토로하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회사

축종 특성에 맞춘 전문적·제도적 지원 필요  
장기적 관점 ‘한우 산업육성 종합계획’ 절실  
한우농가 경영 안정-수입 전면 자유화 대비



###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

대한민국 한우산업은 수급불안, 사료값 파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자원이자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축산업이다. 그러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폭등과 원자재값 상승은 생산비 부담으로 작용, 한우농가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하가와 폭등하는 생산비로 농가의 경영위기가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위기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는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업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해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제언을 모아 한우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제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다하겠다.

###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한우산업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관세폐지와 CPTPP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한우 사육농가 8만9,000호 중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농의 비중이 5만호에 달하며, 번식우 사육은 소규모 고령농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한우가격 폭락 및 한우농가의 경영 위험을 방지할 경우 우리 농업에도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한우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당면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무쪼록 오늘 국회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주관 :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일시 2023. 8. 24. 13: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 주제발표 1 김재민 팸인사이트 편집장

### 축산행정 후퇴의 원인과 해법

축산법령-축산행정 조직·인적자원 전문성 요구  
‘기본법-기능법-품목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1990년 UR 협상 이후 대한민국 축산시장은 완전개방됐으나 축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장 개방 후에도 2001년에서 2010년까지 고도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축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 체제와 축산행정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전문성 부재, 빈약한 축산조직 등의 원인으로 축산행정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침체되고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56년 수의사법을 비롯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축산관련 주요 법률들을 보면 필요해 따라 그때 그 때 만들고 고쳐쓴 법률이 많다. 현행 축산관련 법령은 모든 법령에 모든 품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 각 품목마다 특성이 달라 하나의 법률에 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다른 품목법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와 미디어 등은 각 품목간 통합 조정이 필요해지면서 기본법과 품목법의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미디어의

경우 통합 법률에서 품목법 전문법 체계로 이행된 것과 같이 축산 관련 법령도 이 부분을 고려해 축산 법률체계 전체를 손봐야 한다.

현재 축산 품목별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과 정책 실패 시 농가는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보게 된다. 때문에 축산 품목법령에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송아지 안정제를 한우안정제로 개편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한우 유통조직과 관련해서도 수출조직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며 한우 유전자원 선발과 유통의 경쟁 체제 도입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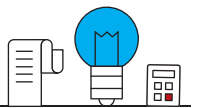
축산법령, 축산행정조직, 축산행정인적자원에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 # 주제발표 2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심의기구로 승격 역할부여  
한우산업 육성관련 법적 근거마련-재정지원 필수



기존 축산법은 1963년 6월 26일 제정, 그간 57차례의 개정 등이 있었으며 한우를 포함해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축산법 제27조의 삭제에 따라 기업들이 사육, 유통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축산업 분야의 기업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축산법 제32조의 규정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0년간 지급이 된 적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임시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심의기구로 승격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 특성상 소농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에 대

한 규정이 전무하며 자급조사료 확충과 사육, 부산물 사료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한우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지자체의 한우산업 관련 육성과 지원 조례에 대한 모범이 부족해 한우산업 관련 육성과 지원 조례의 법률적인 기준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을 위한 별도 법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 # 종합토론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일시: 2023. 8. 24.(목) 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주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정승현 한국생명자원환경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전상곤 경상대 교수를 비롯해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 한양수 본회 부회장, 송재일 명지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우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한우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각계에서 바라보는 한우법에 대한 견해를 내놔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경영과장은 한우법 관련 조항들을 축산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빠른 시일내 본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장 정승현 한국생명자원환경자원연구원장**

(전 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 >> 오늘 토론이 왜 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이어 나가길 바라면서 생산자 대표부터 의견을 듣겠다.

**한양수 부회장 >>** 법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 세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는 중소농가 보호이다. 생산기반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고 향후 2026년 관세 제로 이후 급격한 농가 호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약 9만 호 농가는 전체 축산분야에 8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우는 쌀과 함께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으로 생산기반 유지, 가격하락 등 산업위기 시 중소농가를 보호하는 제도와 법안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산업의 전문화에 걸맞은 산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변화된 한우산업 환경의 육성 제도 없이 한우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만을 담고 있다. 탄소 중립에 따른 가축사육여건 변화와 환경관리법의 규정 강화 등 축산법에 축종별로 모두 담기가 어렵고, 또 변화는 정책 및 모든 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축산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 한우 보호법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임 암소 기준 삭제,

안정기준가격 현실화 등 기준개정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유명무실화하여 농가의 송아지 안정제 가입률이 현재 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 법 제정을 거부하겠다는 정부의 설득력이 낮다. 세 번째는 토종 유전자원의 부재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상징성이 높고 고유 유전자원으로 보존자원의 가치가 높은 축종이다.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농업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유지, 중소경영안정, 및 한우 수급안정 중소농가를 보호, 한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지속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우 산업법이 꼭 필요하다.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 >>** 태우그린푸드는 2015년부터 한우 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코로나 19 등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워 주춤했지만, 다시 수출의 기지개를 켜며 여러 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우 수출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우 수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참여하는 한우수출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출 단가 및 수출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우 수출 미래는 밝은 편이다. 한우고기가 최고라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의 확대에 앞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우 수출진흥법이라던가, 법을 제정해서 일본처럼 통제력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유통에서 한우 산

업법 제정에 필요한 부분은 내장, 부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령이다. 부산물 소비촉진법을 통해서라도 현행 내장 및 부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전상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한우법 제정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첫 번째는 지역 균형발전에 한우산업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소멸, 농촌의 고령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는 다른 축종과 달리 토종유전자원이라는 점과 농촌에서 중소규모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쌀을 경작하면 발생하는 소득은 1,000만원 수준이다. 충분한 소득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한우 100두 정도 사육을 하면 3,000~5,000만원 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른 품목에 비해 중소규모의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한우이다. 한우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산업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돈이 투입됐음에도 공급과잉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고민이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한우산업기본법의 취지를 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수혜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어있으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우 산업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한우 산업도 제대로 된 법과 절차가 없어서 아프고 불안한 상황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법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진단을 해주고 치료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입법부라고 하면 병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는 것이 행정부가 할 일이다. 사법부는 사후관리다. 피드백을 담당하는 것이 사법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축산법 내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관련 조항들이 이미 축산법에 있고 정부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명분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품목별 소 돼지 각각 진흥법이 있고, 축산법과 같은 기능법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으면서도 다른 법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한우가 30년 전에 1등급이 10%인데 현재는 60%가 넘고 생산액도 7-9조까지 올라섰다.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의 노력으로 성과를 냈기도 했지만, 여러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한우 가격이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주기가 좀 더 빨라지는 추세이다. 수급조절협의회를 명문화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고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사실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 물론 한우뿐 아니라 경영과에서 여러 축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특별법은 제정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잘 돌아갈 것인가?. 법을 만들게 되면 예산과 조직이 따라가야 한다. 예산과 조직이 받쳐줄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농식품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존 조문을 다 검토해봤다. 검토 결과 여러 부분을 축산법내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축산법 내에 조항을 만들면, 조문을 확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폐지된 내용을 다시 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축산법안에 낙농과 양계 쪽에 출자제한이 있었다가 사라졌다.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살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다, 조문까지 개정한 축산법 내용을 빠른 시일내 한우협회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 # 질의응답

정부가 수급 잘못 개입해서 농가만 피해  
젖소에 한우 수정란 이식하는 문제 근절  
한우법 제정...기업자본 규제 반드시 필요



### 강일섭 완주 농가

60대 후반까지 소 40두 키워오면서 별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나. 하나도 모은 것이 없고 소 파동이 오니 사료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다. 남은 여생 고생 덜하도록 한우법 제정과 정책을 짜주길 바란다.



### 이찬희 당진 농가

두가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유통 마진이 너무 높아 생산자, 소비자만 엄청난 피해를 본다. 두 번째로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 삽입해서 새끼를 낳는 것의 근절이다.



### 진명호 익산 농가

현재 정책으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경기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 키우려고 서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정인철 울산시 지부장

농민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세금포탈과 탈루를 위해 흘러들어온다. 축산법으로 기업규제가 어렵다면 한우법으로 기업자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강일구 당진 농가

문제는 10만 톤 수입이었다. 수급에 정부가 잘못 개입해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



### 김영자 나주 농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밥 주고 이 자리에 왔다.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이라고 하는데, 한우농가들이 한 나절이라도 쉴 수 있는 안정적인 노동을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민의 말을 귀담아들어 주길 바란다.



### 이일준 세종시 지부장

지금까지 한우농가 규제는 환경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농식품 부라고 느꼈다. 한우법을 만들어달라는 농가의 말에 농식품부는 축산법 내 흡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맥락이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실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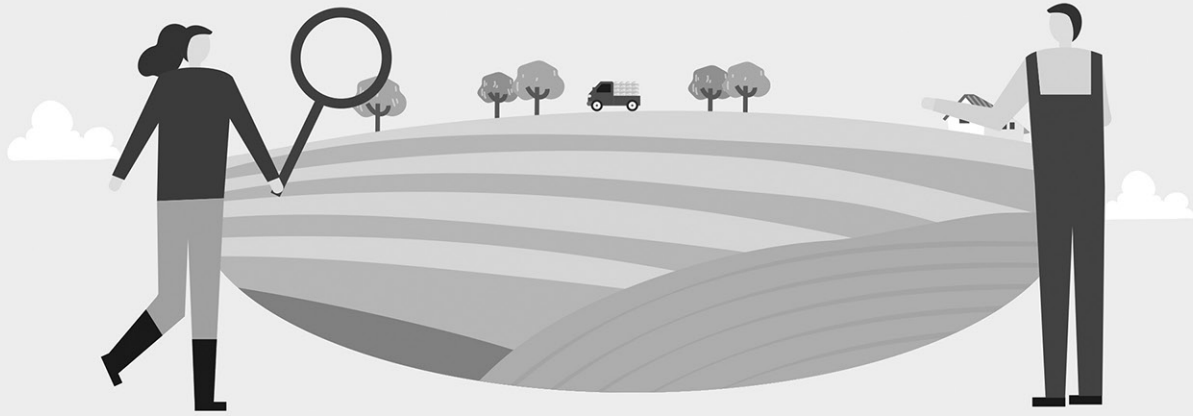
###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유통비용률은 해외에 비춰봐도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기본적인 유통이윤을 줄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다. 젖소 수정란이식 문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추후 논의를 하겠다. 한우법에 관한 논의는 협회와 더 긴밀히 이야기 하겠다.



#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시행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시·구·읍·면)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신청 대상	신청자	시행일	첨부서류	비고
① 농지 임대차 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벼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③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제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제재사항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구/읍/면)에 문의 바랍니다.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다른 시·도 이동이 금지됩니다.

**기 간**

2023.10.1. ~ 2024.2.29.(5개월)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퇴비 제외

**제 한**

소·돼지 분뇨(생분뇨) 다른 시·도로 이동 금지

\*인접하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 후 제한적 이동 허용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가축방역부서)로 문의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하

일시 : 2023. 8. 24.(목) 13: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택 주관 :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

## “한우법 연내 제정하라” 한우농가 법제정 촉구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한 개별법 필요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 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우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국의 한우농가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 국회에 섰다. 작년부터 떨어진 한우값은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등한 생산비로 인해 한우농가는 1두당 250만원의 적자를 보며 착잡한 심정으로 소를 출하하고 있다.

1985년, 1996년, 2011년, 2022년 벌써 네 차례의 소값 파동으로 한우농가의 출도산과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지역 농가에서는 소를 팔아 사료값을 대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소가 소를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뒷받

침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낡고 누더기된 축산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우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와 식량안보적 가치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우법 제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년 여야 모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 기업과 기업자본의 생산 참여 금지, 그리고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 한우법을 발의했고,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정회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회에 모인 전국 한우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을 위한 강한 열망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우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의 산업화·규모화를 인정하고, 축산법과는 별도로 한우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하나.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기초를 다지고, 지방소멸시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연내 한우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라!**

2023년 8월 24일  
전국 9만 한우농가 일동



## 2023년 제4차 이사회

# 정부의 자조금 관조화 시도 강경한 반대 입장

자조금 납부거부 운동 등 강력 대응 시사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강원 동해시지부 설립(안)과 일부 예산전용(안)을 의결했으며, 정부의 자조금 관조화 시도에 강경한 반대 입장과 축산단체 연대 대응, 한우법 추진을 위한 대응체계 등을 정리했다.

### 자조금 관조화 축단협 차원 대응

이사회 참석 임원들은 ‘2024년 한우자조금 사업 계획(안)’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 부의 자조금 특수법인화 의견에 강경한 반대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은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안을 보면 수급안정 사업을 제외하고 협회의 자조금 위탁사업 규모가 42억 6,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정부 매칭 비용을 받으면서 자조금을 정부 입맛대로 운용해 나가는 것에 동의할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호 경북도지회장은 “한우농가를 위해 지도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자조금 납부 거

부 등의 행동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경필 이사는 “수급안정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큰데 협회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우자조금은 돈 관리만 하면 되고 모든 사업 주도권은 협회가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한우협회 이사들이 노력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우협회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회장은 자조금 관련 내용은 모든 축종에 공통되므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축단협 차원의 축산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한우법 통과에 전국적 노력

우리 협회는 제21대 국회 회기 내 한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임 임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우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 구제역 제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기간 단축  
\* (현행) 6주 → (개선) 자가접종 농장 2주, 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 4주
- 사육두수에 맞는 백신 적정 수량 구매 여부 확인 및 점검
- 백신 콜드체인(colded-chain) 시스템 관리 기준 마련

##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강화합니다

- 소 항체검사 물량 3.4배 수준으로 확대  
[연간 16만두 → 54만두]
- 자가접종 농장 검사 두수 확대 (5두 → 16두)
- 도축장 출하 소 항체검사 확대  
\* '23 하반기 1만두 → '24년 10만두 → '25년 20만두

##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한 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합니다

-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일제 점검
- 밀집사육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 특별점검
- 권역별 순회교육 및 지자체 공무원 방역역량 강화 교육

##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농장입구 출입차량 차단장치, 차량소독시설, 출입통제 안내판 등 방역시설 설치
- 농장에 들어갈 때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 백신 냉장보관, 1두 1침 사용, 적정 용량 주입 등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 축산업계 미래 공유...참관객 3만여 명 발길

국내 축산업 활성화와 해외 수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관객 3만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대한양계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이번 박람회는 총 214개 업체가 665개 부스 규모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축산기자재, 시설기자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등 해외 10개국에서 28개 업체가 44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명실공히 국제 박람회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았다.



##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료 우수 축산인 시상...자금심 고취

### 최우수상에 이완순 대표·우수상에 권태현 대표 수상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은 주관을 맡은 오세진 양계협회장을 비롯해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태손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이종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축산인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우수 축산인 최우수상에는 △이재신 배은농장 대표(대한양계협회) △이성수 중앙농장 대표(대한양계협회) △이완순 푸른농장 대표(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장) △현연수 연수농장 대표(한국낙농육우협회) △최순철 범천농장 대표(한국오리협회)가 수상했다.

우수 축산인 우수상은 △김동이 동호농장 대표(대한양계협회) △최영태 대한한돈협회 상주시지부장 △권태현 생활농장 대표(전국한우협회) △이동학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경남도위원장, △박치훈 치훈농장 대표(한국오리협회)가 수상했다.

한편 2025년에 열리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주관단체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맡기로 했다.

우수축산인 장관상 이완순 옥천군지부장



우수축산인 우수상 권태현 영주시지부 회원





## 세계 곳곳 '한우 런칭쇼-홍보관' 개관! 한우 수출국 마케팅 전력

홍콩 소다몰에 '한우관' 개설...한우 우수성 알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한우 런칭쇼-수출 계약

올해 들어 한우 수출국이 빠르게 넓혀지고 있다. 지난 5월 이슬람 국가중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이 타진된 데 이어 지난 8월말에는 캄보디아 수출 계약이 성사돼 각 국에서 한우 런칭쇼를 열었다.

수출되는 한우는 원플러스 및 투플러스(1+, 1++) 등급으로 해외에서 한우는 적절한 마블링이 맛과 풍미를 높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우 갈비살 기준 지방 비율은 40~50% 수준인데, 지방비율이 20~30%로 기름기가 적은 미국·호주산과 지방 비율이 80%로 높은 일본 와규 사이에서 균형잡힌 맛있는 고기로 통한다.



### 홍콩 한우 홍보관 개관

지난 8월 21일, 홍콩 홍콩에 한우 세계화 전초기지인 한우 홍보관을 개관했다. 이번에 개설된 한우 홍보관 이름은 '한우관'이다. '한우관'이 들어선 홍콩 Soda Mall은 'SODA'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홍콩 신축 고급 주택 빌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정식 할랄인증 수출

말레이시아 한우 수출은 공고롭게도 말레이시아 현지 한우 런칭쇼 하루 전날인 5월 10일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자칫 한우 수출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말레이시아 정부에 한우는 모든 개체의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오히려 부각시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에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속·투명한 정보 공유에 사의를 표하며 한우 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 캄보디아에서 한우 런칭쇼...한우 우수성 알려



캄보디아 역시 한우 런칭쇼를 통해 한우 우수성을 알렸다. 메콩 국가에 한우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캄보디아는 일본 와규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추후 주변 동남아 국가로 한우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로 수출된 한우는 주로 호텔 및 고급 식당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며,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 홍콩푸드엑스포 프로(Food Expo PRO) 참가

이와 관련, 홍콩 현지 '2023 홍콩푸드엑스포'에 참가해 홍콩 리테일 시장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홍콩컨벤션센터 5층 파빌리온관에 5개 부스 규모로 한우 공동 홍보관을 구성했다. 강원, 충남, 전북 3개 지자체와 브라이트존, 오레올, SHHK, 한인홍 등 4개 현지 수입 바이어사가 한우 공동 홍보관 운영을 지원해 한우 수출 상담과 시식회 등 현지 리테일 시장 재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동참했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 한가위엔 한우를 선물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업계 소비 촉진-내수 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전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가공품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이 상향됐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회는 "수입농축수산물 시장점유율만 높이는 악법"으로 칭하고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전까진 명절 대목만이라도 선물다운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도록 가액 상향을 주장하며, 2015년부터 집회, 토론회 등 강경대응을 해왔다.

지난 2021년 국회의원 50명 이상 면담과 국민권익위원장 면담 등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을 관철하였고, 2023년 올해 역시 높아진 물가 상황을 반영한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성명 등 추가 상향에 노력해 30만원 결정에 기여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이 상향될 때까지 과정을 살펴보고 한우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 본다.



## 청탁금지법 개정, 한우협회 부단한 '노력' 더해져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한우 수요 감소로 한우가격이 8.8%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 가격 측면만 보면 소 한 마리 가격이 2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특히 한우의 명절 도축 마릿수는 전체 도축의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설과 추석에 집중돼 있어 명절이 한해 농사를 책임진다고 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선물 가액 설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2021년 11월 30일 김삼주 회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회장은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22년 설맞이 한우 할인판매 행사 모습

김삼주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 가운데)을 만나 청탁금지법 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리 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민권익위 방문을 필두로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 에 충력을 기울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2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한우 선물구입 큰 영향

우리 협회의 노력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일시 상향된 2022년 설은 전국 한우 할인판매 행사 매출이 24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농축협 매장,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전국 688개 매장에서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등 한우 인기 부위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 결과 343개의 농축협 매장에서 약 140억원, 대형마트와 한우영농조합법인 345개소에서 약 80억원의 매출을 각각 달성했다. 이전해 설맞이 할인행사가 12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까운 매출 신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선물 상향액 상향 정책이 한우 선물 구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육류 구매자의 절반 수준인 51.8%로 나타났다.

### 내수 진작 차원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요구 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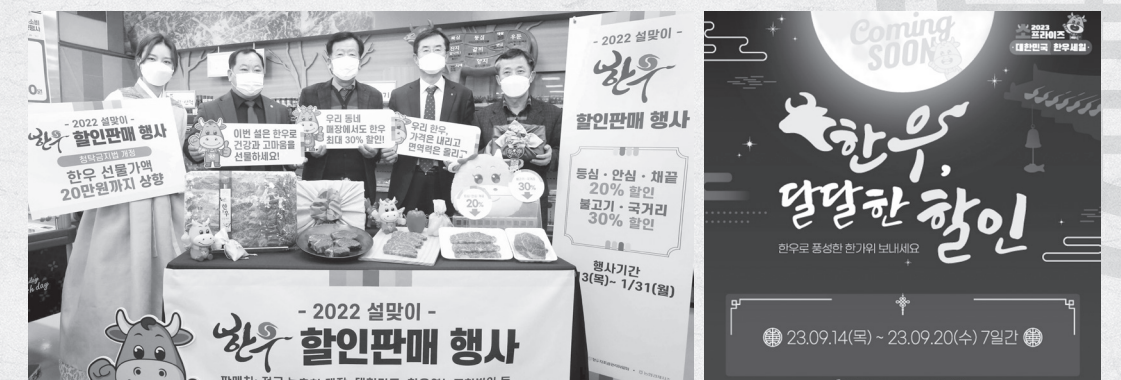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매년 임시적 조치가 아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살펴보면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나”는 질문에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협회의 노력으로 더욱 본격화됐다.

우리 협회를 주축으로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 협회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로 현장에 밀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우리 협회는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 인상과 소비 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



선물가액 일시 상향  
한우 할인판매 매출







우리 협회를 주축으로 생산자 단체는 지난 2021년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을 올려주길 바라며 가액 상향으로 인해 시장에 활력을 부는 소비 분위기 전환 및 현재의 어려움이 타파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협회는 낡고 현장을 담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법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석 전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 상한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돼야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석 명절 준비를 위해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권익위의 결정에 전국 축산농가들과 관련 단체들은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명절 특수가 큰 한우업계는 이번 조치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가 2016~2020년 월별 평균 도축마릿수를 바탕으로 내놓은 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 특수기간인 4개월간 도축 비중은 한해 전체의 41.9%로 평달과 비교하면 약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추석에 일시 상향된 2020년을 비교하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진다. 2019년 선물가액 10만 원이었을 때의 추석 명절에 비해 2020년 선물가액 20만 원인 명절에는 도축마릿수도 늘어났으며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도 10만 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있는 상한액에 대한 논의가 숙제로 남아있다. 그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있었고 수입농축산물 장려 정책이라는 오명도 썼었지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종합청렴도는 높아졌고 금품제공률은 낮아졌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실제 농축수산물로 인한 청탁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워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





슬기로운  
출하요령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과장(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 (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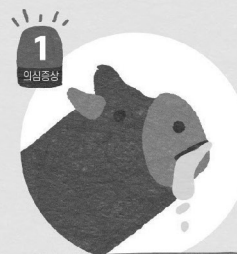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외부인 출입통제  
및 소독철저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 구제역 확산 차단!

방심은 금물! 차단방역 철저!



거품 침흘림



콧구멍 가피



혀와 잇몸 물집



발굽 궤양 가피

증상발생시 즉시신고

☎ 1588-9060  
1588-4060

구제역 백신 접종 철저

발판 소독조 설치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한우 동향 분석 2023.8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한우사육】 2023년 7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0.62% 증가, 전월 대비 0.17% 증가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 전월 대비 0.94% 증가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0.84% 감소, 1세~2세는 동일, 2세 이상 0.12% 감소



## 【등급판정】 7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3.0%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 23.8%, 1\*등급 : 24.1%, 1등급 : 25.1%



## 【도매 및 산지가격】 7월 한우 도매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큰 소 전년 및 전월 대비 하락,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1.2% 하락, 전월 대비 1.1% 하락(수소는 40.7% 하락, 18.4%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2.4% 하락, 전월 대비 4.7% 상승(수송아지는 15.8% 하락, 2.1% 상승)



##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7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2.13% 증가
- 7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12.79% 감소



## 【쇠고기 수입】 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감소, 전월 대비 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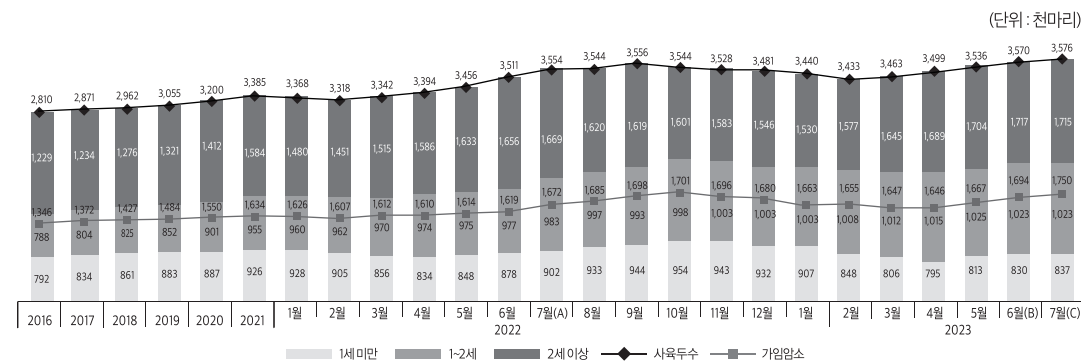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11.3% 감소, 냉장육 11.9% 증가



## 1. 한우 사육 동향

◎ 2023년 7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증가,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 인 농가 자율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57만 6천 마리로 전년 동월(355만 4천 마리) 대비 0.62%(2만 2천 마리) 증가, 전월(357만 마리) 대비 0.17%(6천 마리) 증가
- 가임암소는 171만 마리로 전년 동월(167만 2천 마리) 대비 2.27%(3만 8천 마리) 증가, 전월 (169만 4천 마리) 대비 0.94%(1만 6천 마리) 증가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0.84%(7천 마리) 증가, 1~2세는 동일, 2세 이상은 0.12%(2천 마리) 감소
- 사육 농장수는 84,897농장으로 전년 동월(88,854농장) 대비 4.45%(3,957농장) 감소, 전 월(85,261농장) 대비 0.43%(364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42.1마리로 전년 동월(39.9마리) 대비 5.51%(2.2마리) 증가, 전월 (41.9마리) 0.48%(0.2마리)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한우 사육 두수 현황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A)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12월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1,546	39.8
2023	1월	87,160	3,440	1,663	57.4	907	1,003	1,530	39.5
	2월	86,861	3,433	1,655	67.4	848	1,008	1,577	39.5
	3월	86,524	3,463	1,647	115.8	806	1,012	1,645	40.0
	4월	86,145	3,499	1,646	125.7	795	1,015	1,689	40.5
	5월	85,616	3,536	1,667	116.8	813	1,020	1,704	41.3
	6월(B)	85,261	3,570	1,694	-	830	1,023	1,717	41.9
	7월(C)	84,897	3,576	1,710	-	837	1,023	1,715	42.1
증감률	전년동월(C/A)	△4.45	0.62	2.27	-	△7.21	4.07	2.76	5.51
	전월(C/B)	△0.43	0.17	0.94	-	0.84	0.00	△0.12	0.48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7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7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68,423마리로 전년 동월(62,065마리) 대비 10.2%(6,358마리)

증가, 전월(71,847마리) 대비 4.8%(3,424마리)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54.8%, 수소 0.4%, 거세우 44.8%

\* 전월대비 : 암소 1.0%p↓, 수소 0.1%p↓, 거세우 1.1%p↑, 거세율 0.2%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단위:마리,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2.1.~7월)	466,267	220,454	3,629	242,184	98.5
	100.0	47.3	0.8	51.9	
금년누계 (’23.1.~7월)	515,667	267,721	2,905	245,041	98.8
	100.0	51.9	0.6	47.5	
전년동월 (’22.7월)	62,065	31,699	396	29,970	98.7
	100.0	51.1	0.6	48.3	
전월 (’23.6월)	71,847	40,114	346	31,387	98.9
	100.0	55.8	0.5	43.7	
당월 (’23.7월)	68,423	37,481	283	30,659	99.1
	100.0	54.8	0.4	44.8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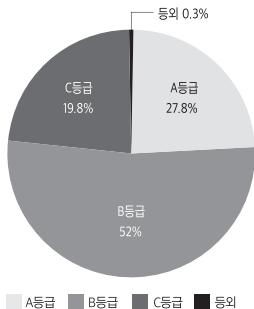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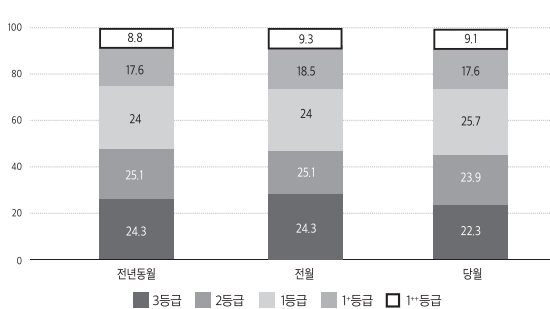
◎ 7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3.0%, 전년 동월 대비 1.9%p 감소, 전월 대비 1.1%p 증가

○ 7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3.8%, 1\*등급 24.1%, 1등급 25.1%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1.9%) 대비 1.1%p↑, 1\*\*등급 1.5p↑, 1\*등급 0.2%p↑, 1등급 0.6%p↓

- 전년 동월(73.3%)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0.3%p↓, 1\*\*등급은 0.5%p↓, 1\*등급 1.0%p↓, 1등급은 1.1%p↑

- 전년 누계(74.9%)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0%p↓, 1\*\*등급은 0.4%p↓, 1\*등급 1.0%p↓, 1등급은 0.4%p↑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두, %, %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7월(A)	62,065	24.3	25.1	24.0	73.3	17.6	8.8	28.9	52.3	0.3
	1~7월(B)	466,267	24.9	25.5	24.5	74.9	17.3	7.6	25.7	52.3	0.3
2023	'22.6월(C)	71,847	22.3	23.9	25.7	71.9	18.5	9.3	27.7	52.4	0.3
	7월(D)	68,423	23.8	24.1	25.1	73.0	17.6	9.1	27.8	52.0	0.3
	1~7월(E)	515,667	24.5	24.5	24.9	73.9	17.5	8.3	27.1	51.6	0.3
전월대비(D-C)		△3,424	1.5	0.2	△0.6	1.1	△0.9	△0.2	0.1	△0.4	0.2
전년동월대비(D-A)		6,358	△0.5	△1.0	1.1	△0.3	0.0	0.3	△1.1	△0.3	0.0
전년누계대비(E-B)		49,400	△0.4	△1.0	0.4	△1.0	0.2	0.7	1.4	△0.7	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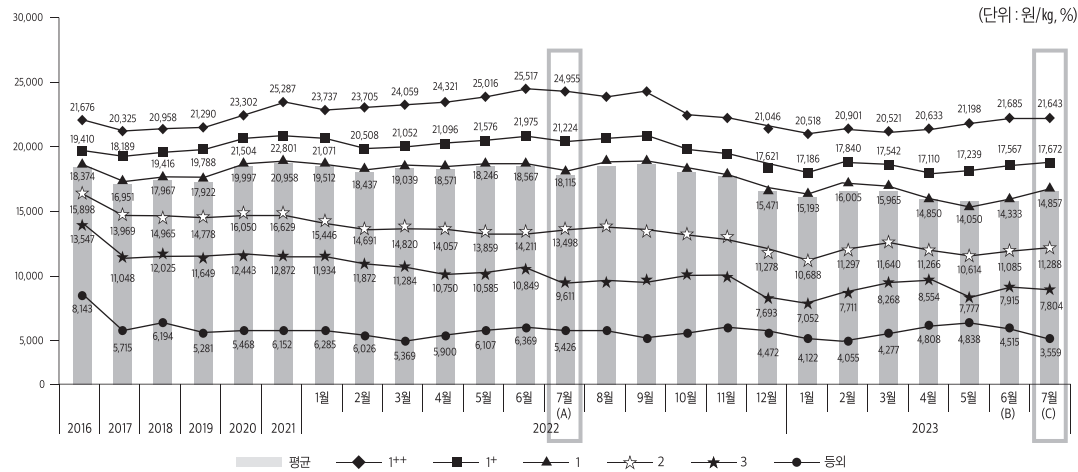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3년 7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7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4,857원/kg)은 전년 동월(18,115원/kg) 대비 18.0%(3,258원/kg) 하락, 전월(14,857원/kg) 대비 3.7%(524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5,976원/kg)은 전년 동월(19,086원/kg) 대비 16.3%(3,110원/kg) 하락, 전월(15,588원/kg) 대비 2.7%(418원/kg) 상승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 7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하락,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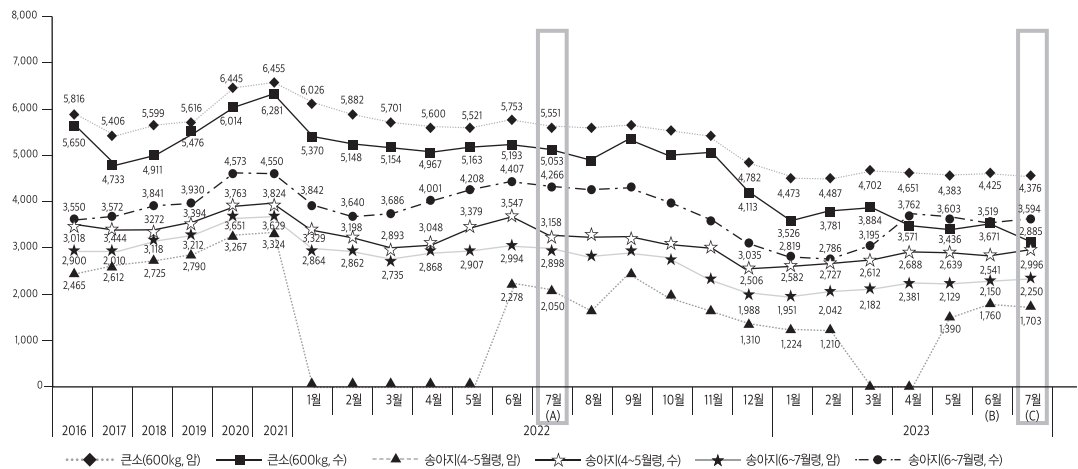
- 7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376천원으로 전년 동월(5,551천원) 대비 21.2%(1,175천원) 하락, 전월(4,425천원) 대비 1.1%(49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2,996천원으로 전년 동월(5,053천원) 대비 40.7%(2,057천원) 하락, 전월(3,671천원) 대비 18.4%(675천원) 하락
- 7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250천원으로 전년 동월(2,898천원) 대비 22.4%(648천원) 하락, 전월(2,150천원) 대비 4.7%(100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3,594천원으로 전년 동월(4,266천원) 대비 15.8%(672천원) 하락, 전월(3,519천원) 대비 2.1%(75천원) 상승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7월(A)	24,955	21,224	18,115	13,498	9,611	5,426	19,086
2023	6월(B)	21,685	17,567	14,333	11,085	7,915	4,515	15,558
	7월(C)	21,643	17,672	14,857	11,288	7,804	3,559	15,976
증감율	전년동월(C/A)	△13.3	△16.7	△18.0	△16.4	△18.8	△34.4	△16.3
	전월(C/B)	△0.2	0.6	3.7	1.8	△1.4	△21.2	2.7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A)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12월	4,782	4,113	1,310	2,506	1,988	3,035
2023	1월	4,473	3,526	1,224	2,582	1,951	2,819
	2월	4,487	3,781	1,210	2,727	2,042	2,786
	3월	4,702	3,884	-	2,612	2,182	3,195
	4월	4,651	3,762	-	2,688	2,381	3,571
	5월	4,383	3,603	1,390	2,639	2,129	3,436
	6월(B)	4,425	3,671	1,760	2,541	2,150	3,519
	7월(C)	4,376	2,996	1,703	2,885	2,250	3,594
증감율	전년동월(C/A)	△21.2	△40.7	△16.9	△8.6	△22.4	△15.8
	전월(C/B)	△1.1	△18.4	△3.2	13.5	4.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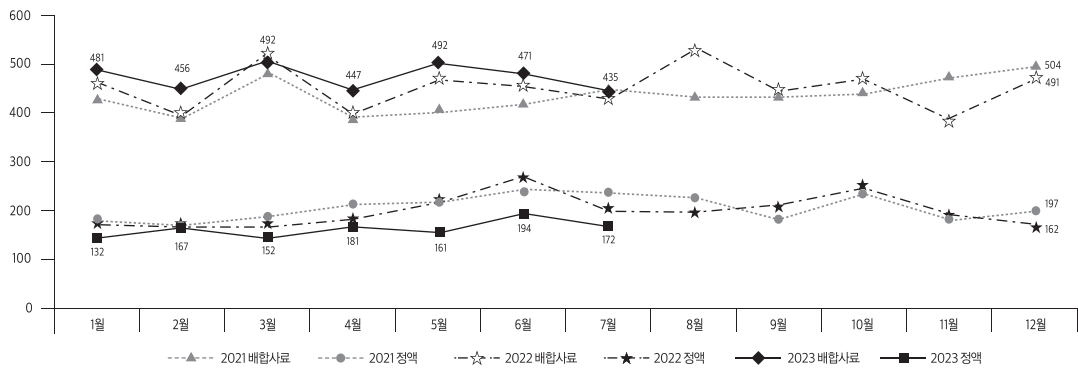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3년 7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7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35천 톤(당해년도 누적 3,264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3,196천 톤) 대비 2.13% (68천 톤) 증가
- 7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2천 str(당해년도 누적 1,159천 str)로 전년 동기간 누적 판매량(1,329천 str) 대비 12.79% (170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46	492	447	492	471	435						3,264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67	152	181	161	194	172						1,159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5. 2023년 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7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6,507톤으로 전년 동월 4만 3,249톤 대비 15.6%(6,742톤) 감소, 전월 3만 9,076톤 대비 6.6%(2,569톤) 감소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11.3%(3,519톤) 감소, 냉장 쇠고기 11.9%(950톤)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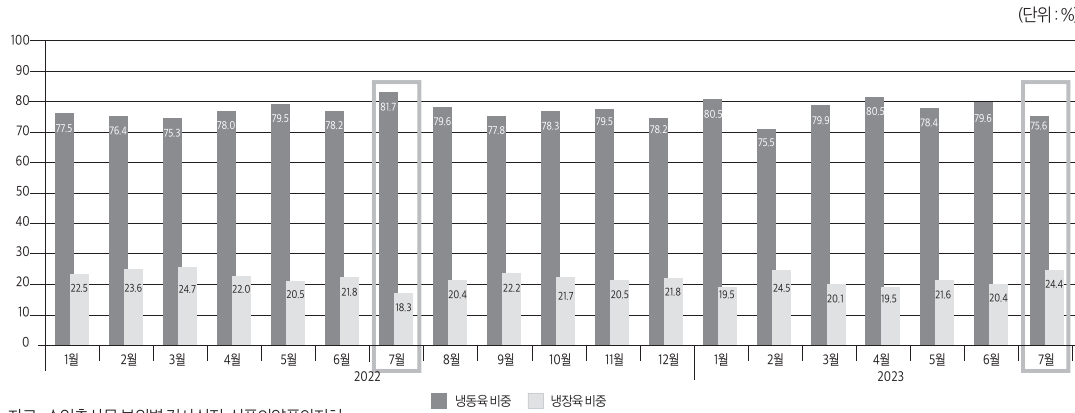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2월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2023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2월	35,118	26,500	8,618	13,171	5,511	5,129	2,806	8,501	21,270	10,317	3,531
	3월	43,632	34,874	8,758	15,822	6,523	5,944	3,958	11,385	23,952	15,077	4,603
	4월	41,615	33,514	8,101	13,263	6,438	5,909	4,073	11,932	20,291	17,999	3,325
	5월	44,373	34,783	9,590	13,788	5,896	7,086	4,815	12,788	23,587	16,984	3,802
	6월	39,076	31,120	7,956	11,771	4,719	5,193	4,695	12,698	19,504	15,863	3,709
	7월	36,507	27,601	8,906	12,098	3,690	4,848	4,697	11,174	19,314	15,402	1,791
	누계	275,970	217,087	58,884	91,598	38,385	39,728	28,241	78,018	144,940	105,829	25,201
증감률	전년동월	△15.6	△21.9	12.7	△26.6	△48.2	20.0	26.1	△5.9	△18.6	3.8	△61.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

- 7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양지 48.2%(3,437톤), 갈비 26.6%(4,837톤), 기타 부위 5.9%(700톤) 감소, 등심 26.1%(973톤), 앞다리 20.0%(809톤) 증가
- 7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1.0%(190톤) 감소, 호주산 2.9%(461톤) 감소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기고

## ‘한우산업 안정화’ 다양한 활동 기대

‘한우농가 소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관건  
한우산업 불황기 단축위한 정책 활동 총력



장기선  
한우신문 편집인

1999년 9월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5천여명의 한우농가가 운집해 전국한우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24년이 지났다.

뒤늦게 출범한 축산단체이지만,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의 창립 이후 활동이 탄탄대로를 걸어온 것만은 아니었다. 한우산업은 1996년 한우값 폭락사태,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한우산업의 붕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전국한우협회는 출범 이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01년 4월 향후 10년간 2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만들어냈지만, 생우 수입이란 암초를 제거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복원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2년여간의 생우수입 저지 활동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한우 만만 운동’은 전국한우협회 내외부의 한우농가 결속을 이끌어냈으며, 전국한우협회 조직의 힘을 강화시켜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산업 재도약 활동의 기틀을 제공했다.

당시 전국한우협회 초대 임원과 도지회 및 시군지부 한우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이다. 재정적으로 안

※ 필자는 전국한우협회에 18년동안 근무했으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정화되지 못한 전국한우협회가 생우수입 저지 투쟁을 2년여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 및 시군 한우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이후 2005년 둔갑 판매 등 수입 쇠고기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자는 한우농가의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입법화하고, 국회에서의 ‘한우농가 중심의 자조금 법제화 결의대회’ 등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제화를 이뤄냄으로써 의무자조금인 한우자조금 설치를 이뤄냈다.

또한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을 제안해 2009년도 전면 시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의 창립 24년은 이같은 전반기 12년의 활동과 2011년 한우값 폭락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후반기 12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2010년 구제역 발생,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이 이뤄졌으며, 2011~2014년 한우값 폭락의 불황기와 2016~2021년 호황기, 그리고 2022년10월이후 현재까지의 불황기를 겪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활동도 한우산업이 직면한 환경에 맞춰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2013년 한우값 회복 총력 투쟁과 김영란법 반대 및 FTA 확대 저지 투쟁, 그리고 대기업 축

산업 진입 저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대정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에 더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우법’ 제정 추진과 한우 수출 확대를 통해 향후 한우산업 안정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12년, 전국한우협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초창기 한우협회 운영은 도지회장 중심 운영체계였다. 한우협회 활동에 대한 의사 수렴 및 결정의 신속성과 한우농가 참여도 제고가 최대 장점이었다. 형식과 절차에 있어 안정성을 장점으로 하는 현재의 이사회 중심 운영체계와 협회 초창기 도지회장 중심 운영체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전국한우협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우농가의 소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힘은 ‘한우농가 수’에서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황기 단축을 위한 미경산 암소 감축 등 자발적 수급조절사업 강화와 사료값 안정 등 생산비 절감 정책 활동에 전국한우협회가 총력을 경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한우협회의 창립 24주년을 축하하면서, 향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전국한우협회 활동의 다양한 변화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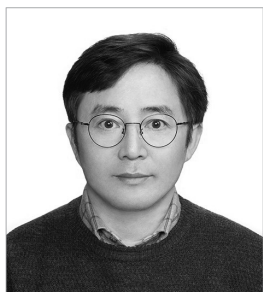




기고

## 한우산업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

한우산업 특성·문화적 가치...일반 축산업과 분리  
고유한 품질 유지·향상 위해 '한우법 제정'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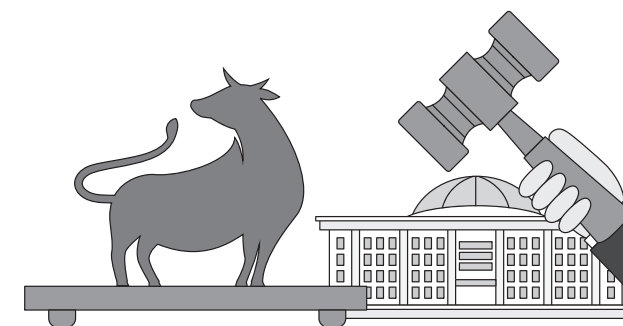
최성호  
충북대 축산학과 교수

한우는 몇 안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의 하나이다. 과거 농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요한 자산의 하나였다. 산업화와 시장개방화 시기를 마주하면서 역용 역할은 사라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우르과이라운드가 발효되면서부터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 외국산 소고기에 대 응하기 위해 한우 산업은 고급육 위주의 생존전략을 선택하고 개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학계, 산업계 및 국공립 기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우를 탄생시킨 것이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각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한우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인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COVID-19 상황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소가 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춘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모든 한우관련된 산업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해야 한다. 한우는 다른 가축과 다르다. 이미 돼지, 닭, 염소 등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이 되었거나, 그 원천이 다 외국인 가축들이나, 한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을 생산하는 축산업에 더해 문화



또는 우리 고유 자원 것을 고려해서 법안이 접근 되어야 한다. 한우 농장부터, 식탁 혹은 문화까지 포함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축산법은 한우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에 특화된 지원이나 규제를 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은 현재의 경영 환경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여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가들을 지원할 필요 한우산업 특별법의 필요성은 우리의 농업과 경제, 문화 및 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로 근거 지어진다.

첫째, 한우산업은 그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 일반 축산업과는 분리하여 대우되어야 한다. 한우산업은 단순히 쇠고기 생산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둘째, 한우는 그 풍부한 육질과 특유의 맛으로 국내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

한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한우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셋째, 한우산업은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 내의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기를 띄우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한우산업 특별법을 통해 토지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와 한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우법 도입은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법률의 도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후손 대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에서 각각 한우산업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공감대는 충분하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 가을철 효율적인 송아지 사양관리 포인트

어린 송아지 최초 질병 발생 개시 짧아져  
송아지 질병 폐사율 전체 70~80% 차지  
환절기 설사-호흡기 발생 방지가 포인트

### 1. 서론

가을철은 타 계절 대비 사료 섭취량이 증가해 일당 증체량 증가 등 여름철 고온에 의한 생산성 감소를 만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한우의 사육 방식도 다두 사육 형태로 바뀌면서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린 송아지의 최초 질병 발생 개시 일수도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체계의 개선, 특히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사양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축우의 경우에 있어서 송아지 시기의 질병에 의한 폐사율은 전체 폐사율의 70~80% 정도로 육성우 및 성우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우사육은 환절기의 세심한 사양관리가 생산성 향상 즉 소득증대와 직결되는데 가을철 사양관리는 공통적으로 송아지 중심 사양관리, 기온 차이에 따른 생체반응의 변화, 사료 급여량의 조절, 환기, 기타 일반 관리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가을철 환절기 송아

지 사양관리 부분 중 면역력 향상 방법을 사료학적 사양관리를 중심으로 소개 한다.

### 2. 송아지 면역력 강화 방법

#### 가. 흉선의 발달

##### 1) 흉선의 정의 및 중요성

흉선이란 척추동물의 임파 조직의 하나로 면역 기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소의 경우 흉선은 [그림 1]과 같이 가슴의 중간과 경부의 2군데에 있고 경부에 있는 흉선은 축진이 가능하여 그 크기를 확인 할 수 있다. 흉선이 작으면 T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적어지며 이로 인해 T세포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B세포의 항체 생산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미생물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없다. 결과적으로 흉선이 적으면 질병에 약한 송아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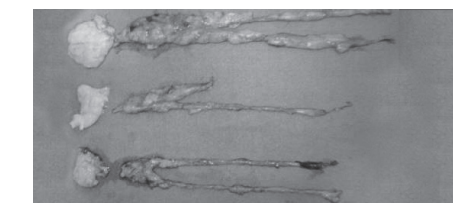
##### 2) 흉선 크기의 중요성

태어났을 때 흉선의 크기는 개체에 따라 다르며 클수록 면역력이 높다고 한다. [그

[그림 1] 송아지 흉선의 위치



[그림 2] 송아지 3두의 흉선, 개체에 따라 크기 차이가 있다





림 2]는 모두 생후 30일령 전후의 홀스타인 숫 송아지 3두의 흉선을 해부하여 적출한 것이다. 중량은 위에서부터 162g, 30g, 45g으로 흉선의 이상적인 무게는 체중×0.4% 정도인데 체중 35kg에서 140g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상 흉선의 크기는 [그림 2]와 같이 스코어 1-3으로 분류되고 스코어의 값이 클수록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즉 큰 흉선을 가지고 태어난 송아지는 튼튼한 것이다.

### 3) 흉선을 크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태아의 단계에서 섭취 영양소 함량을 증대시킨다. 즉 분만 전 2개월의 어미 소의 영양 충족이 낮으면 흉선 스코어가 낮은 송아지가 태어나 태어나기 쉽다. 특히 조단백질 충족율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만 2개월 전부터 사료 급여량을 늘린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초는 조단백질이 낮은 것이 많으므로 조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를 임신 말기에 급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표 1] 개선전과 후의 흉선 스코어 차이

구분	두수	흉선 스코어	
		평균치	1.5이하 비율
개선전	11	1.67	54.5%
개선후	25	2.16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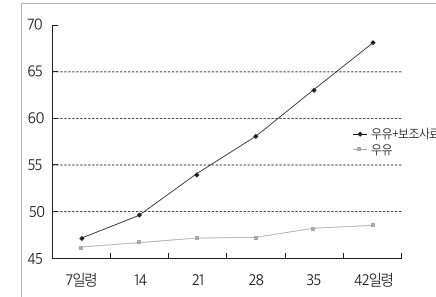
에는 임신 말기 영양개선에 의한 흉선의 발달 정도가 나타나 있다.

### 나. 이유 전용 사료 급여에 의한 송아지의 영양 충족

일반적으로 신생 송아지에게 초유, 대용유, 이유 사료의 순서로 사료를 급여하는데 이중 대용유는 겨울철 온도 조절과 적정 희석 비율, 노동력 소요 등의 문제로 영양 보충을 위하여 일찍부터 스타터(이유 전용 사료)에 익숙하게 하여 자유롭게 섭취시키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 2]에는 하루에 4kg의 우유만을 급여하였을 때의 체중과 하루에 4kg의 우유와 보조 사료를 같이 섭취하였을 때의 체중 변화가 나타나 있다. 즉 이유 전용 사료를 송아지가 5일령 정도 되었을 때 천천히 섭취 훈련을 시키는데 송아지가 우유를 먹은 직후에 우유 급여 용기 바닥에 이유 전용 사료를 한번 넣어 주거나 송아지 입에 사료를 문혀준다.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7-10일령에는 얼마간의 이유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각 사료회사는 어린 송아지 전용 이유용 사료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TDN 75~78%, 조단백질 20~25% 수준이다. 주로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주원료로 기호성과 일당 증체량의 향상, 설사 예방 등에

[표 2] 보조사료 급여에 의한 증체 효과



있어 좋은 효과를 나타내어 송아지에게 별 무리 없이 이유를 하여 본격적인 성장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 다. 깨끗하고 따뜻한 물의 충분한 급여

소에게 급여하는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음수량은 송아지의 경우 두당 1일 20ℓ 이상의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는 기온이 하락하면 가급적 물을 섭취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차가운 물 섭취로 체온이 뺏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송아지는 성우에 비해 체내 수분 함유율이 높아 음수량 부족이나 설사 등에 의하여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송아지의 음수는 출생 후 1주일부터 시작되고

[표 3] 물의 급여와 송아지의 증체량

물 급여 방법	군수	두수	일증체량(g)
자유	5	34	523
제한	6	56	406
무	2	18	211

대용유나 스타터의 섭취량에 비례하여 음수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음수량을 제한하거나 급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발육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송아지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 음수량이 달라지므로 항상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급여하도록 한다.

## 3. 맺음말

현재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소 자율 감축과 소비처 증대, 한우고기의 홍보,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소비자 가격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는데 번식우 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량 송아지의 육성을 제고를 통하여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란 송아지는 면역력이 높으므로 환절기 환경 변화 등 여러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잘 자란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우선 '건강한 송아지를 육성하는 것'은 환절기 스트레스에 의한 설사와 호흡기 발생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 건강한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흉선의 발달을 통한 면역력 향상, 필수 영양분의 충분한 섭취, 보온과 환기의 중요성, 깨끗한 물의 급여 등으로 송아지 자체의 면역력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전문가 칼럼



황보용  
농협한우개량사업소  
검정부 박사

# 내 농장 한우개량, 암소에서부터

한우의 개량은 1960년경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6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전국 한우농가에서 보유한 소들의 경제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하여 정액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육량과 육질이 향상되어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지금도 많은 한우농가에서는 보유한 소들의 개량을 위해 좋은 정액을 구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정액을 사용해야만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되고, 개량도 잘 되는 것일까?

한우개량을 농사에 비유하면 좋은 토양은 암소, 우수한 종자는 숫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와 함께, 토양이 비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농가 입장의 개량에 있어서도 우수한 정액의 확보와 함께 암소집단의 개량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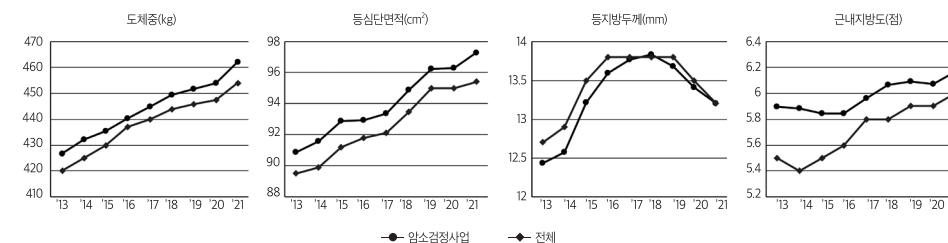
## 암소개량의 효과

암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연히 게도 송아지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잘 자라는 송아지는 송아지 시기의 경매 단계에서도, 성우까지 비육하여 판매하는 단계에서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농가 운영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들은 우수한 송아지를 원한다. 앞서 기술하

였듯,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한우농가들이 우량 송아지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우수한 몇몇 정액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인기정액은 당첨확률이 지극히 낮을뿐더러 송아지의 능력은 아버지와 어미의 예상유전전달능력(EPD)을 반반씩 이어받기 때문에 정액에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에서  
후보씨수소를 생산한 암소



[그림 1]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와 일반농가에서 생산된 거세우의 도체형질 비교

[표 1]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와 일반농가에서 생산된 거세우의 도체형질

도체형질	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거세우			일반농가 생산 거세우		
	도체형질2013(a)	2021(b)	증감(c=b-a)	2013(a)	2021(b)	증감(c=b-a)
도체중(kg)	426.7	462.1	35.4	420	454	34
등심단면적(cm²)	90.9	97.3	6.4	89.5	95.4	5.9
등지방두께(mm)	12.4	13.2	0.8	12.7	13.2	0.5
근내지방도(점)	5.9	6.2	0.3	5.5	6.0	0.5

의존한 개량효과는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사용할 경우, 인기정액에 비해 구하기 쉬운 정액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지역단위로 우수한 암소집단을 만들기 위해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참여 암소에 대해 혈통과 후대우의 도축성적을 고려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데, 농가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암소에 맞는 계획교배를 하고, 생산된 거세우의 도체형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2)과 (표 1)을 보면 도체중, 등심단면적 및 등지방두께의 개량효과는 암소검정 참여농가에서 더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암소개량에서 도태의 중요성

농가의 암소집단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암소개량을 위한 첫번째로 과제로 '저능력암소의 도태'를 꼽겠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7두의 번식우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A농가를 만들어 암소집단을 구축해보았다. A농가에서 보유한 7두 암소의 유전능력을 (표 2)에 나타내었으며, 그중 유전능력이 좋지 않은 2개체를 도태한 결과 암소집단의 평균유전능력이 증가하였다.

A농가의 평균유전능력을 실제 전국평균 및 상위 25%의 암소들과 비교해 보았다(그림3). 도태 전에는 전국평균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였으며, 등지방두께의 경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



전문가  
칼럼

[표 2] A농가의 저능력암소 전·후 평균유전능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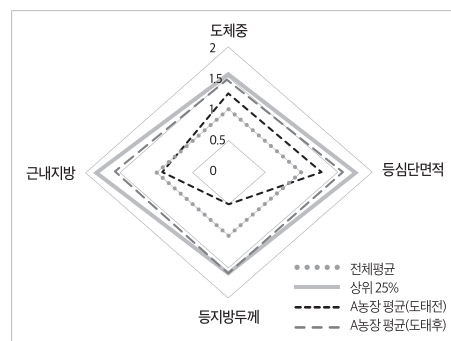
개체	도태전(前) 유전능력(EPD)				도태후(後) 유전능력(EPD)			
	도체중 (kg)	등심단면적 (cm <sup>2</sup> )	등지방두께 (mm)	근내지방도 (점)	도체중 (kg)	등심단면적 (cm <sup>2</sup> )	등지방두께 (mm)	근내지방도 (점)
1	20.25	5.7	-0.65	1.56	20.25	5.7	-0.65	1.56
2	29.15	5.96	-0.52	1.17	29.15	5.96	-0.52	1.17
3	16.67	3.63	-0.78	0.67	16.67	3.63	-0.78	0.67
4	14.98	3.29	-0.39	0.36	14.98	3.29	-0.39	0.36
5	5.57	1.81	-0.21	-0.01	5.57	1.81	-0.21	-0.01
6	4.21	-0.23	0.56	-0.03				
7	11.85	3.37	0.75	-0.54				
평균	14.67	3.36	-0.18	0.45	17.32	4.08	-0.51	0.75

나 단 2두만 도태하였음에도, A농가 암소집단의 평균유전능력은 전국 상위 25% 수준으로 올라갔다. 특히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 항목이 도태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예시와 같이 암소들의 유전능력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을 가진 개체를 도태

하는 것만으로도 평균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농가에서 원하는 도체형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암소축군을 조성할 수 있다. 당장에는 송아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암소집단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저능력암소 도태 전·후 유전능력 비교

### 암소의 번식간격을 확인하자

송아지 생산은 번식농가뿐 아니라 비육농가에서도 농가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암소의 평균 임신기간은 285일로 발정주기인 21일과 회복기간을 고려한다면 송아지 1마리를 생산하는데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적·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암소당 송아지 생산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암소의 분만기간 단축은 농가소득 향상에 중요하다. 충남대학교 도창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분만간격은 초산일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



[표 3] 번식 1개월 지연시 손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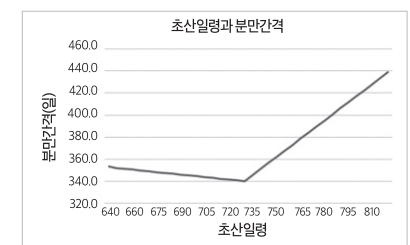
항 목	비용(원)	기간(월)	월 추정손실액(원)
송아지 판매수입 (기회비용)	3,863,000	17	227,235
번식우 사료비	1,578,000	12	131,500
번식우 기타비용	1,542,000	12	128,500
계			487,235

※ 자료 : 2022년 농협경제제주

으며, 초산일령이 730일(약 24개월령)일 때 분만간격이 340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즉, 적절한 초산일령을 맞추어 교배를 진행해야 이후 송아지 생산주기 역시 감축시킬 수 있다.

번식간격이 중요한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번식지연시 발생하는 손해 때문이다. 2022년 농협경제제주

자료(표3)를 보면 번식간격이 1개월 지연될 때 마다 약 49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사료값과 물가상승으로 한우사육 생산비가 증가한 요즘시기에 번식지연은 전보다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손실감소를 위하여 암소집단의 번식간격 파악은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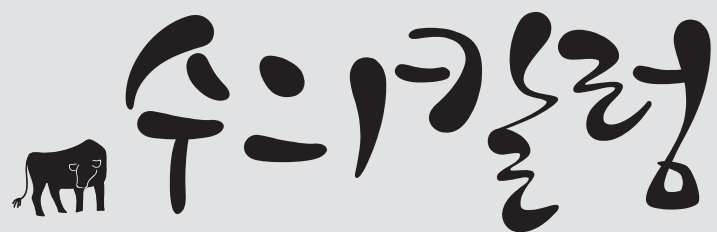
[그림 3] 초산일령에 따른 분만간격

### 결론

최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중인 농가에서 후보씨수소가 선발되었다(KPN1779). 이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해당 농가는 암소의 유전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수암소집단을 조성하기 위해 저능력암소를 적극적으로 도태하였으며, 계획교배를 철저히 반복하였다. 그 결과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후보씨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한우개량을 육종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컴퓨터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한 요즘에는, 농가에서 직접 계획교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씨수소개량 못지않은 암소개량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배포하는 한우씨수소의 유전능력정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한우계획교배 길라잡이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시중 한우관련 앱 등을 활용하면 농가에서도 직접 계획교배를 할 수 있다.

필자는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 정액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소를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지금 당장 내 농장의 암소의 유전능력부터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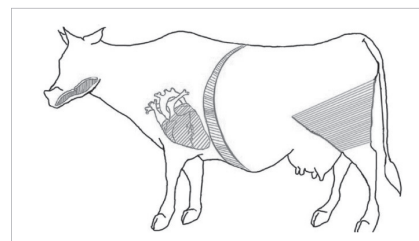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 집중 호우에 따른 한우 주요 질병과 관리 요령 ②

집중 호우에 따른 질병 피해는 습한 환경과 공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토양병인 탄저병, 기종저, 장독혈증, 보툴리즘 및 곰팡이 중독증, 기생충성(원충) 설사병과 폐렴과 같은 질병은 한우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숙련된 한우 농장주나 관리인들은 추운 겨울철에 폐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우가 추위와 습한 날씨에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의 오염을 강하게 한다. 차갑고 젖은 한우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여름철에도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1. 기종저(Black leg)

○ 오염된 사료나 음료를 통하여 장관에 감염되는 기종저는 고열, 식욕절폐, 고창증이 일어나고, 보통 발병 후 심한 호흡곤란으로 12~15시간 만에 폐사된다. 주로 뒷다리의 근육이 두꺼운 곳 즉 허벅지, 궁둥이, 어깨, 가슴, 목 등에 기종(피하조직내에 공기나 가스가 차여 있는 상태)이 생기며, 누르면 머



기종저 병변 부위

리카락 비비는 소리가 들린다.

○ 기종저균은 토양속에 오랫동안 생존하므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초기에는 면역혈청·페니실린·설파제 등으로 치료하며, 매년 봄철 방목전 생후 4개월 이상의 소에 탄저-기종저생독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 2. 장독혈증(Enterotoxemia)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에 의해 발병되며, 동물의 장관내에서 증식해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괴사성, 출혈성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소, 면양, 산양, 돼지 등의 급성, 치명적 질병이다.

○ 장독혈증은 1892년 보고된 이래. 원인체는 가축(소, 양, 말, 돼지, 사슴 등)의 장관에 상재하면서 과식 등에 의한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될 때 다른 혐기성 균과 연루해 장내에 이상 증식돼 송아지의 7~28일령에 가장 감수성이 높아서 장독혈증을 유발시킨다.

○ 소를 포함한 반추수의 경우 심급성형인 경우 갑자기 발병하여 급사, 특이 증상없이 갑작스런 폐사와 약간의 체온상승, 뇌증상(보양창란, 경련, 선회운동)을, 급성형은 식욕부진 및 구토, 설사, 쇠약, 뇨중 당의 증가(2~6%), 고창증세, 복통, 출혈성 설사, 사지마비, 호흡축박, 경련발작을, 만성형은 1~2주동안의 간헐성, 지속성 설사를 일으킨다.

○ 발병 후에는 항생제 치료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조기에 페니실린계 및 마클로라이드계 등의 항생제와 항독소의 병용을 추천한다. 예방대책으로는 사료의 급격한 변경을 피하고 본병과 유사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료 중의 농후사료의 양을 줄이고 독소이드백신 또는 사균백신의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항독소를 예방적으로 경구 투여할 수 있다.

### 3. 보툴리즘 중독(보툴리누스증)

○ 소 보툴리즘은 보툴리즘균이 생산한 신경독소(neurotoxin)에 의한 진행성 운동신경 마비가 특징인 치명적인 중독증이며, 지구상 천연독소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 혈액내 독소 3일이면 소실로 확인 불가하고 혈액중 독소가 우유로 나오지 못하며, 사일리지에 쥐 등의 동물사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툴리즘은 균의 감염병이 아니라 보툴리즘균이 오염된 동물의 사체나 식물에서 발육하면서 생성된 보툴리즘독소를 동물이 먹고 발병하는 중독증이다.



- 국내 소에서 보툴리즘이 공식으로 확인된 것은 1999년 경기도 포천의 11개목장 소 125두에서 남은 음식물사료를 먹고 발생해 95두가 폐사한 것이며, 같은 해 강원도 양구의 1개목장 소 28두가 역시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고 발생해 28두 모두가 폐사했다. 2011년에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및 신북면 일원의 한우 및 젖소 17개 농가에서 356두가 정상체온, 기립불능, 후구마비, 식욕절폐 증상 발현 후 3~4일만에 폐사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백신접종이후 발생두수 감소 및 미발생했다.
- 주요 증상으로는 독소를 섭취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간은 6시간에서 10일(일반적으로 18~36시간)이며, 보툴리즘균이 생산한 신경독소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점진적인 수의근의 쇠약증상이 나타나 머리, 목 등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마비가 오고 운동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 기립불능, 호흡곤란, 침흘림, 사료를 삼키지 못하고, 옆으로 눕거나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는 등의 증상을 볼 수 있으며 발병하면 대부분이 수시간에서 수주 내에 호흡근육 마비로 폐사한다.
- 한번 발병한 소는 회복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완전치료가 안되며 혈액 및 장에서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어도 근육이완 및 마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증상과 진행속도는 섭취한 독소의 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독소에 대한 항혈청을 정맥이나 근육으로 주사하면 치료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 따라서 보툴리누스증을 예방하려면 사양관리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소 특히 임신말기의 소는 영양분과 마그네슘, 염 같은 필수 미량물질을 풍부히 공급해야 한다. 광우병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소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보툴리즘이 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부주의로 죽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건초, 사일리지 등이 사료에 섞여 급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독소백신(botulinal toxoid vaccine)을 접종하면 예방효과 있으며, 소에는 5ml, 양은 2ml를 4~6주 간격으로 2회 피하에 접종한다.



보툴리즘 독소증으로 인한 한우 폐사  
(9두, 2012. 전남 ○○지역)

[표 1] 소에서 보툴리즘 발생사례 (2003~2005, 영국)

품종	사육두수	발생두수	발생월령	감염의심원	노출정도
젖소	851	109	7~24	닭농장 깔짚, 닭, 여우, 꿩 사체	직, 간접
육우	969	115	7~24	닭농장 깔짚, 꿩 사체, 아채쓰레기, 뽕부스레기, 사일리지	직, 간접

#### 4. 기생충(원충)성 설사병

- 원충성 기생충은 지알디아, 콕시듐 및 크립토스포리듐을 포함하며, 소에서 콕시듐증의 임상 증상은 혈액이 섞인 설사, 탈수, 노책, 식욕의 감퇴와 체중의 감소 등을 나타낸다.
- 콕시듐증에 걸린 설사병의 처치는 항균제(암프로리움 또는 설포나미드 약), 항생제(이차 세균 감염을 방지) 및 수액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한다. 콕시듐증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데코키내이트, 라살로시드, 암프로리움 또는 모넨신과 같은 약을 사료에 첨가한다.
- 크립토스포리듐(와포자충)은 생후 1~3주된 송아지에서 설사를 일으켜 1~2주간 지속돼 옅은 노란색 또는 묽은 녹색 설사변, 탈수, 체중감소, 2~5일에 걸쳐 빠르게 마르는 것이 특징이며, 국내 한우와 젖소 송아지 0~60일령에서 38%(류 등, 2021)로 발생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로 0~30일령에서 다발했다. 설사병의 다른 모든 원인과 마찬가지로 예방 및 제어는 송아지의 사육 환경에서의 감염 분뇨에 송아지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오시스트(Oocysts)는 시원하고 습한 조건에서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지만, 송아지 분변의 감염성은 건조 1~4 일 후에 감소하며, 난포낭 감염성은 동결 온도와 수산화암모늄, 과산화수소, 염소, 10% 포르말린 식염수 및 5% 암모니아에 노출되어 파괴될 수 있다.
- 감염된 송아지 동물의 장에 서식하며, 개체는 감염된 보균 한우의 분변으로 오염된 오염된 사료, 토양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접촉해 감염되며, 감염 후 2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지알디아의 증상에는 경증에서 심한 설사, 과도한 가스, 위 또는 복부 통증, 탈수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2주에서 6주 사이에 지속될 수 있으나, 때로는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심할 수 있다. 지알디아(편모충)는 3주 이상된 송아지에서 다발하며, 진흙상 점액성 수양성변, 국내 한우와 젖소 송아지 0~60일령에서 17%정도 발생한다. 주로 0~30일령에서 다발했고, 편모충증(giardiasis)라는 질병을 일으켜 소장의 용모를 위축시키고 평평하게 해 장에서 흡수 장애를 일으킨다.



크립토스포리듐 설사 분변



송아지 설사병 발병우



설사 분변



## 풍요를 기원하는 명절

# 추석

秋夕



한가위, 가위, 가배, 중추절로 불려

삼국사기에 추석에 대한 기록 등장

추수 앞두고 '풍년 기원' 의미 담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 '추석(秋夕)'이다. 추석은 월석(月夕)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추석날 밤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 가운데 달이며, 또한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가진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한가위, 가위,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중추(中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로도 불린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추석명절을 쇠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선대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 한가위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천지일보, 대구신문

## 추석, 어디서 왔나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추석은 특히 농본시대에 가장 크게 여겼던 명절이다. 또한 추석은 우리네 선조들의 생활습성이 가장 잘 배어있는 명절이기도 하다. 추석의 시원(始原)이나 유래에 대한 명확한 문헌자료는 없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추석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자료를 통해 추석이 신라 초기에 이미 자리 잡았으며,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 조에 기록된 추석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왕이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나누어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편을 짜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했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게 하고 8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功)의 다소를 살펴 지는 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고 모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으니 이를 가배라 한다. 이때 진 편이 여자들이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아름다웠으므로 뒷사람들이 그 소리를 인연으로 노래를 지어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

추석의 유래가 '가배'라는 이름으로 1세기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다. 여기서 '가배'라는 이름은 가윗날, 한가위 등에 '가위'로 남아있다.





###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추석은 본래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 이날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다. 또한 추석 즈음에는 대부분의 곡식이나 과일이 익지 않은 상태여서 추수를 하기 전 농사의 중요 고비(가뭄, 장마, 태풍 등)를 넘겼을 때 미리 곡식을 건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추석의 본 의미였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시절 여름 농사일은 이미 끝나고 이제 가을 추수라는 큰일을 앞두고 성묘도 하고 놀면서 즐기는 명절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추석은 풍년 기원의 의미는 있지만 추수 감사의 의미는 없다. 현대에 들어 농사기법과 종자가 개량되고 나서야 추석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으며,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연날리기 등의 전통놀이도 행해졌다. ‘설빔’이라는 말처럼 추석에도 새 옷감으로 옷을 지어 추석날 아침에 갈아입는 ‘추석빔’이 있었다.

한편 강강술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다.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며 이는 여성과도 관련돼 있다. 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정월대보름의 만월(滿月)은 만삭의 여성에 비유됨으로 대보름날의 강강술래 놀이는 여성들이 풍요의 달 아래서 논다는 의미로 풍요의 극치를 의미한다.

강강술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다.



### 속담 속 추석이야기

우리 민족은 해학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와 속담이 유독 많다. 그중 추석은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 이는 추석 무렵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웃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워처럼’이란 속담은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못 입고 못 살던 시절, 웃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었던 데서 비롯됐다.

많이 들어봤을 속담 중 하나인 ‘송편을 잘 빚어야 시집 잘 간다’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 등이 있다.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멥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하고 기호에 맞게 깨, 콩, 꿀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찌내는 음식이다.

‘설은 질어야 좋고 추석은 맑아야 좋다’는 설에 눈이 자주 내리면 보리 농사에 좋고, 추석 무렵 맑은 날이 많아야 곡식이 잘 영글기 때문에 풍년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대표적인 속담이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은 5월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등거리가 마를 겨를 없이 땀 흘리며 일하지만 8월은 농사가 마무리돼 가는 때여서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하니 신선이나 마찬가지로 뜻이다. 다른 사람의 아니꼬운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위가 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작년 추석에 먹었던 오례송편이 나온다’는 속담도 있다.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는 속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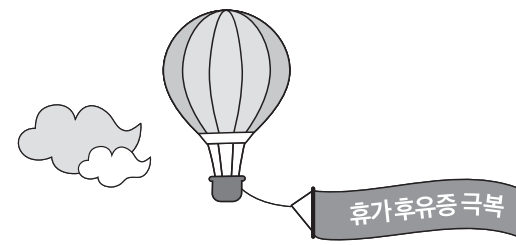




# 여름휴가 잘 보내면 藥 후유증 극복 못하면 毒

휴가가 재충전의 기회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가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곤 한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한 일정 속에 과도한 음주자무를 즐기다 보면 일상의 격무에서보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마련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여름 휴가를 다녀온 남녀 직장인 527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후유증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4%는 “휴가를 다녀온 이후 더 피곤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휴가 후유증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세계일보, 매일경제



휴가 다녀온 이후가 더 피곤하다  
규칙적인 생활로 생체리듬 회복하고  
제철 과일·채소 챙겨 먹으면 효과

여름 휴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꼽혔다. 이어 ‘특별한 방법 없이 그냥 버틴다’는 직장인도 20.5%에 달했다. ‘또다시 휴가 계획을 세우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쁘게 업무에 몰입하며 극복한다’는 직장인들의 대답도 각각 14.6%로 나타났다.

## 휴가 후유증 수면장애, 두통 주의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직장인들은 대개 휴가 후유증으로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곤 한다. 휴가후유증은 피곤함, 노곤함, 무력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수면장애, 소화불량, 두통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정신적·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하지만 무리한 휴가일정, 휴가기간 중 피서지에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등 평소와 다른 불규칙한 생활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휴가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체리듬은 대뇌의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에 의해 조절되는데, 휴가 중의 불규칙한 생활

## 규칙적인 생활습관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출근을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로 복귀한 후에도 일주일 정도는 일찍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피로하다고 장시간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더 피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심할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낮 동안 심한 피로가 느껴지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동안의 낮잠을 취하는 것도 오후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생체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특히 아침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찍 자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 커피, 담배 자제 비타민, 과일 섭취

휴가를 다녀온 뒤 생체리듬을 회복하기까지 당분간 커피, 담배는 삼가고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졸음을 몰아내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거나 커피, 자양강장제를 많이 마시는 것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생체리듬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자체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인체



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로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이나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는 밀린 일이 많더라도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조금씩 일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려고 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짜증만 느끼게 된다.

또한 틈 날 때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 몸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것도 휴가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 휴가 후유증 ‘닥터 119’

뜨거운 자외선 노출...‘햇빛 화상’ 위험  
하루 3~4회 냉수찜질 피부손상 최소화

### 배탈, 설사, 장염 배앓이 질환에는 매실청

휴가 후유증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배탈, 설사, 장염 등의 배앓이 질환이다. 여행지에서 소위 ‘물갈이’로 인해 탈이 났을 수도 있고, 차 안이나 실내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의 배에 탈이 났을 때는 매실청을 미지근한 물에 타 하루 2번 정도 마시게 하면 좋다. 장 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기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 유제품이나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탈수 예방을 위해 미지근한 농농 등을 수시로 먹여야 한다. 만약 증상이 2~3일 동안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점검받아봐야 한다.

### 햇빛화상 입었다면 감자·오이팩 효과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하얗게 벗겨지는 ‘햇빛화상(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다. 휴가지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차가운 물을 수건에 적시거나 얼음을 얇은 천으로 감아 냉찜질을 해줘야 한다. 이후에 피부에 열감이 진정됐다면 진정 효과가 있는 감자를 얇게 저며 올려주자. 열기와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오이를 사용해도 좋다. 살갓이 일어났을 때는 억지로 벗기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물집이 생길 정도의 심한 화상이라면 병원을 찾아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물집이 2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제철 식재료의 만남 여름철 체력 보충 이색 한우요리

출처 :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http://www.hanwooboard.or.kr)



### 한우사과카레 (예산사과)



### 한우버섯탕수육 (원주표고버섯)



### 피자맛한우불고기 (나주배)



### 한우수육 (양주부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편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출하체중 750kg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천연물질을 의한 항병력 강화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이기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성정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적정에너지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반추위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줌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에너지	20.0	2.5	20.0	에너지	14.0	2.0	15.0	에너지	15.0	2.5	20.0	에너지	13.0	2.5	20.0	에너지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9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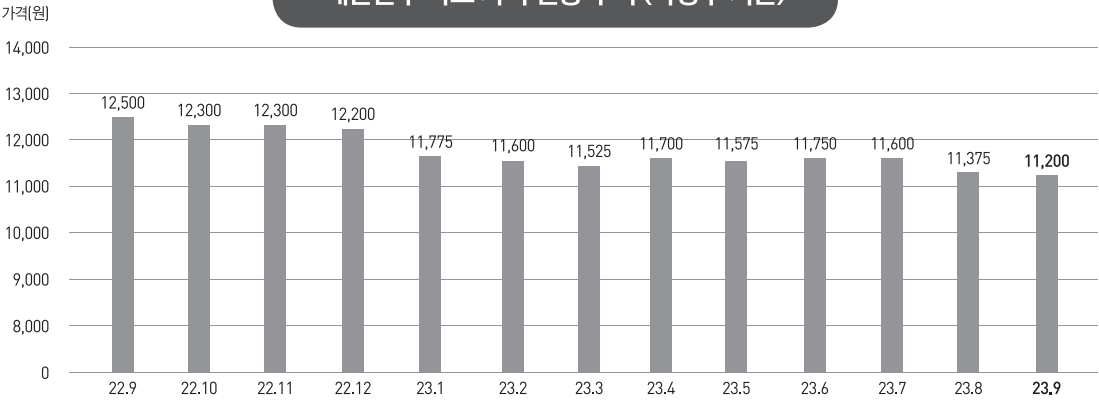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번식우	육성	비육전기	비육후기
14,625	11,050	11,200	11,400	11,6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9호(통권 202호) / 2023년 9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편집 김재광	이메일 025251053@daum.net
광고 이기찬	제작 HNCOM	발송 지산포스트	인터넷 한우마당 <a href="http://www.ihanwoo.kr">www.ihanwoo.kr</a>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한우협회 누리집 <a href="http://www.ihanwoo.org">www.ihanwoo.org</a>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



빠르고, 오래가는  
호흡기 질병 1차 선택 약!

트랙스 주 툴라스로마이신

TRAXX inj.

- ✓ 속효성 & 지속성 주사제 (단, 1회 주사로 14일동안 효과 지속)
- ✓ 강력하고, 광범위한 항균 효과
- ✓ 적은 용량으로 주사스트레스 감소
- ✓ 축종별 포장단위로 잔여량 절감 (20mL, 50mL 포장단위 출시)
- ✓ 폐사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대한뉴팜